

2010년 8월 1일 제자반 성경공부 특강 - 하나님 나라

I. “하나님 나라” 라는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

- . 모든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?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.
- . 하지만 대답을 두리몽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.
- . 이 질문에 당장 대답을 하지 못하면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부딪혔을 때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삶의 패턴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다.
- . “하나님 나라” 라는 주제는 이 질문의 해답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한다.

II.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

- .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한국 사람이면서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르다.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국 땅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.

III. 하나님 나라의 현실

A. 하나님 나라의 정의

- . 일반적으로 천국, 천당 등의 단어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죽어서만 가는 곳인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당시부터 영원까지 계속 되는 개념이다.
- . 하나님 나라는 “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영역” 으로 정의한다.
- .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영역이란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영역으로 이해한다.
- .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된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.

B. 하나님 나라의 현실 (창조 시대의 질서)

1.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아야 살 수 있다.
 - . 창조 세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있다.
 - .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.
 - .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진다.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공급자고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것이다.
 - .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거하는 것이다.
2. 인간과 노동의 관계
 - . 창세기 1:26-31, 2:15을 보면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노동을 했다.
 - . 그 일의 의미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노동은 아니었다.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은 무관했다. 노동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장되었다.

- .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 목적의 성취를 위해 노동하였다.
- .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일을 하게 된 것은 타락 사건 이후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진 후 새로운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생긴 결과이다.

3. 인간의 창조 목적

- .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형상은 히브리어 “צלם” 으로 뒤에 우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된다
- . 우상, 형상이라는 말은 그 대상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진다.
- .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창조물들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격을 띤다.
- .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해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. 여기서 다스림의 의미는 세상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주는 것이다.
- . 인간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(선지자)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임무를 가진다.
- .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(제사장) 역할을 한다.

IV. Not Yet but Already

- .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 인간은 생명의 원천을 제공할 다른 소스로 눈을 돌리게 된다.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변질된다.
- .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인간이 창조의 섭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. 이 것이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말의 의미이다.
- .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 안에서 살도록 요구되어진다.
- .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. 이 상황을 Not yet 이라고 표현한다. Not Yet의 의미는 아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게되는 그러한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.
- .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대로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.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.
- .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.
- . 따라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한국 사람이 보스턴에서 사는 것과 같은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.

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. !!! 열심히 삽시다...